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Sony 3D Solution seminar 개최

- | 3D 촬영-편집-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 줌
- | 신제품 HDC-P1 카메라, MPE-200 3D 프로세서 국내 첫 선



소니 코리아는 지난 3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Sony 3D 솔루션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의 흥행에 힘입어 3D는 최근 영상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에서도 3DTV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니의 3D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소니 코리아의 이번 세미나는 3D 라이브 방송을 위해 실제 3D 카메라와 Rig를 이용한 촬영부터 편집, 3D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현장에서의 시연과 함께 진행됐다.



소니 코리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3D 촬영에 적합한 박스 타입 신제품 카메라 HDC-P1과 3D 촬영을 위한 3D 박스(제품명:MPE-200)를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다.

HDC-P1은 2/3인치 CCD를 탑재한 박스 타입 POV(Point Of View) 카메라로, 본체 폭은 8.6cm에 불과한 작고 가벼운 사이즈와 함께 기존 소니 HDC 시리즈 스튜디오 카메라급의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현재 3D 영상을 제작할 때, Rig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콤팩트한 사이즈의 카메라는 3D 촬영에 아주 이상적이다.



국내 최초 공개되는 3D 박스 MPE-200은 Rig를 이용해 3D 영상을 촬영할 때 일일이 조정하기 번거로운 문제들, 가령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어긋난 축을 바로잡거나 키 스톤 조정, 색채를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3D Box는 국내외의 다양한 제조사들의 Rig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소니 HDC 시리즈 카메라 및 캐논, Fujinon 렌즈 등과 함께 사용하면 메타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실제 3D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방송 장비, 소니 픽처스의 영화를 비롯해 3D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3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BRAVIA TV와 플레이스테이션,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점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소니만의 장점"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3D 영상 제작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